



# 공정보도

2012-2호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00-210) 서울 중구 수하동 67  
/전화398-3620~2/ 팩스398-3630/  
발행인 공병설·공보위간사 고흥규

www.newsunion.co.kr

## “5.16은 쿠데타”..명칭 표기 통일해야 파업후 첫 편집위 개최..대선보도 점검

103일간의 파업 이후 첫 노사 편집위원회가 개최됐다.

편집위는 30일 월례회의를 열어 지난 28일 노조 공정보도위원회에서 제기된 선거보도 부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토의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핵심 안건은 주요 역사적 사건의 명칭 표기 통일, 여야 대선후보 경선기사의 균형찾기, 이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관련기사의 적절성 여부, 삼성 조준웅 특검 아들 특채기사 누락 등이었다.

선거보도와 관련, 노측은 새누리당발 기사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발 기사에 비해 비판의 칼날이 무디고 여론조사 결과 등 여야를 아우르는 소재의 기사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유리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공교롭게도 5.16 쿠데타에 대한 박 후보의 역사평가 발언(“아버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 나온 이후 상당수 기사 본문에 ‘5.16’과 같이 숫자만 쓰고 ‘쿠데타’를 적시하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주요 역사적 사건명칭의 표기를 통일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측은 선거보도 소재의 민감성을 거론하며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다루는 기사에 주관이 녹아든 제목을 붙일 경우 시뻘거리가 될 수 있다며 관련 보도 매뉴얼 작성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5.16 쿠데타 등 역사적 성격 규정이 진작에 이뤄져 교과서에까지 통일된 명칭으로 표기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표기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향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이선근 편집인(편집총국장), 이상인 정치·진병태 경제·한기천 사회 에디터, 공보위 고흥규 간사·강훈상 총무·장용훈 위원, 김상훈 기자협 회지회장등 모두 8명이 참석했다.

### ◇“역사적 사건 표기 통일해야”

▲ 노측 = 공교롭게도 박근혜 후보가 5.16 쿠데타에 대해 ‘아버지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한 이후 이 사건에 대해 ‘5.16’으로 숫자만 쓰고 ‘쿠데타’를 명시하지 않는 기사가 눈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지적이 있다. 숫자만 쓰는 게 자연스러운 경우, 그리고 제목 부분 외에는 ‘5.16 쿠데타’라고 쓰는 게 맞다.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과 마찬가지로 주요 역사적 사건의 명칭 표기를 통일하여 연합뉴스기사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 사측 = 4.19 뒤에는 혁명이 꼭 따라붙고 5.16만 그 뒤에 쿠데타가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박 후보 발언과 숫자가 빠진 기사 빈도의 연관성이나 방향성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의 공식적 정의를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합당하고는 할 수 없으나 짚어주는 게 맞겠다.

### ◇“삼성 특검 아들 특채 기사 왜 빠졌나”

▲ 노측 = 조준웅 삼성 전 특검 아들이 삼성에 특채됐다는 기사는 일부 신문만 다뤘지만 ‘논란’ 정도 로라도 다뤄야 했다. 삼성의 해명을 듣고 일리 있다고 판단하여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예 쓰지 않은 것은 문제다.

▲ 사측 = 특검활동 종료와 채용 시점의 차이, 당사자의 스펙, 이력서에 가족사항 기재란이 없어 조 전 특검과의 관계를 몰랐다는 것이 삼성의 해명이었다. 특검과 특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당사자의 명예훼손을 고려하여 쓰지 않았으나 아쉬움 있다.

### ◇“이대통령 광복절 기념사 과하지 않았나”

▲ 노측 = 단발 스트레이트 두 건, 스트 종합, 와이 드 해설 박스 1·2, 임기 5년간 기념사 비교 표, 이 표를 설명하는 사이드 박스, ‘한달 전부터 기념사 직접 준비’라는 제하의 별도 박스 등 많은 양의 기사가 나왔다. 기사를 많이 서비스해야 한다는 강박을 인정하지만 표 해설이나 ‘..직접 준비’ 박스는 굳이 처리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오버를 심하게 하면 안된다.

▲ 사측 = ‘구시대적’으로 기사를 다뤘다고 본다. 너무 오버하면 모양이 빠진다. 그러나 임기 마지막 연차이기에 기념사를 비교한 것 같다. 또 기념사가 위안부 문제를 건드려서 애초 생각한 것보다 기사가 커진 측면이 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광복절 기사들도 보면 남북정상회담 건이 있기는 했지만 스트와 박스톤이 비슷하다. 더 들여다보고 바꿀게 있으면 바꾸겠다.

### ◇“정당 선거보도 불균형 없나”

▲ 노측 = 여당 기사는 무디고 야당 기사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이 있다. 예컨대 민주당의 경우 모바일 투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경선판이 망가질 것처럼 다뤘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박 후보의 행보나 정책을 다루는 기사들을 보면 희미하다. 안대희 중용 기사도 시민단체 등 바깥의 목소리 말고는 비판적 시각이 담긴 기사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29일 박근혜가 안철수를 이긴 KBS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한 반면 같은 날 안이 박을 이긴 오마이뉴스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보도도 여야 후보군의 지지도 비교를 다뤄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마저 박근혜 지지도 변화 추이를 테마로 뽑는 경우가 많다.

▲ 사측 = 여론조사 결과, 후보 간 지지도가 역전되거나 격차가 벌어질 경우 기사를 써야 할 텐데 기준이 있어야 좋겠다. 앞으로 선거보도점검 회의가 열리면 매뉴얼을 만들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론조사 보도 제목은 숫자만 나열하는 등 기계적으로 다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대희 건은 첫날 기사가 빠졌다. 그러다가 나중에 민주당의 반응 등 박스를 여러개 물렸다. 당일이 아니더라도 이후 기사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고려했으면 좋겠다. 수용자권익위원회도 파업 이후 공정보도가 강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정치부와 노사관계 영역이다.



# 선거보도 이대로 좋은가 객관성.균형감각 한층 더 신경써야

103일 간의 파업 이후에도 연합뉴스 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팎의 비판은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선거보도에 집중되고 있다. 독자들이 요구하는 고도의 객관성과 균형감각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한 탓이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가.

지난달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집행부 회의, 대의원 대회를 겸한 집행부-공정보도위원회-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석회의, 공보위 회의를 잇따라 열어 그 원인을 살피고 대응방안을 숙의했다. 그 결과 정치 일정상 파업 이후 시기에 쏟아진 여야 경선과 대선(예비)후보 관련 보도물은 여전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는 지적

이 나왔다. 물론 파업 이후 정치 영역뿐 아니라 모든 부문의 기사들은 노조원들의 분발에 힘입어 대체로 이전 보다 나아졌다는 평가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현 시기의 특성상 관심은 온통 정치 기사에 쏠리고 있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상당수 노조원들이 정치부장 불신임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선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지금까지 공정성 논란을 초래하며 내·외부의 지적을 받은 기사목록을 여기에 실는다. 통절한 반성과 가혹한 자평을 통해 공정보도를 향한 한 걸음을 더 내딛기 위해서다.

## ◎ 박근혜출정식

- 2012-07-10 <민주 “추대”된 박근혜..박정희 연상>(종합2보)
- 2012-07-10 박근혜 “재벌 신규 순환출자 규제 검토”(종합2보)
- 2012-07-10 <박근혜 출정식서 ‘국민’ 80차례 언급>(종합2보)
- 2012-07-10 박근혜 “재벌 신규 순환출자 규제 검토”(종합)
- 2012-07-10 <박근혜 대선출정식 ‘소통’ 방침>(종합)
- 2012-07-10 새누리, 경제민주화 논의 본격화하기로
- 2012-07-10 <박근혜 문답 “불통과 소신은 엄격히 구분돼야”>
- 2012-07-10 박근혜 출정식장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 2012-07-10 <박근혜 대선출정식 ‘소통’ 방침..1천여명 몰려>-2
- 2012-07-10 <박근혜, 5천만 국민 행복 플랜 제시>-2
- 2012-07-10 <박근혜, 5천만 국민 행복 플랜 제시>-1
- 2012-07-10 <연합시론> 막 오른 대선 레이스, 국민 향한 경쟁 펼쳐야
- 2012-07-10 <민주 “추대”된 박근혜..박정희 연상돼>(종합)
- 2012-07-10 <박근혜 대선출정식 ‘소통’ 방침..1천여명 몰려>-1
- 2012-07-10 박근혜 대선 출마 선언 “국민과 아픔 나누겠다”
- 2012-07-10 <민주 “추대”된 박근혜,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
- 2012-07-10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누가 뛰나>-1
- 2012-07-10 <‘박근혜 대통령만들기’ 누가 뛰나>-2
- 2012-07-10 <박근혜 대선 공약 핵심은 경제민주화>
- 2012-07-10 <‘대권 재수’ 박근혜, 극복해야 할 과제는>
- 2012-07-10 <박근혜 2007년과 달라졌다..성장 패러다임 버려>
- 2012-07-10 박근혜 대선출마선언...대선레이스 본격 접화
- 2012-07-10 <사상 첫 여성대통령 노리는 박근혜 누구인가>
- ▲ 사내외에서 강하게 비판을 받은 박근혜 일대기를 다룬 프로필기사임. 주관적인 인물평을 단정적인 문구로 서술하는 편향성을 드러냄.
- 2012-07-10 박근혜 오늘 대선 출마 선언..꿈·변화·행복역설
- 2012-07-09 <박근혜 출정식 소통..‘국민과 함께’>(종합)
- 2012-07-09 <박근혜 캠프심벌·슬로건 ‘표절’ 논란>(종합)
- 2012-07-09 <박근혜 출정식은 소통..‘국민과 함께’>
- 2012-07-09 <박근혜 출마 선언문 키워드는 변화·희망·미래>
- 2012-07-09 <정몽준·이재오 불참..새누리 경선 흥행 빨간불>
- 2012-07-09 <박근혜 출마 선언후 지방 순회 나설듯>
- 2012-07-09 <박근혜 캠프심벌, 표절 논란 휘말려>
- 2012-07-08 <‘박근혜 주변 고령 黨 중진 안돼’ 발언 와전 논란>
- 2012-07-08 <이상돈 ‘5·16 군사혁명’ 발언 논란>
- 2012-07-08 김두관 대선출마 선언 “평등국가 실현하겠다”(종합)
- 2012-07-08 <박근혜 슬로건 ‘내 꿈 이루어지는 나라’>(종합2보)
- 2012-07-08 <변추석 “박근혜 출정식 명랑하고 즐겁게”>
- 2012-07-08 <박근혜 대선 슬로건 ‘내 꿈 이루어지는 나라’>(종합)
- 2012-07-08 <박근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슬로건 채택>
- 2012-07-08 박근혜 “잠재력·끼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꿈꾼다”
- 2012-07-08 <박근혜, 출정식 드레스 코드에도 관심>
- ▲ 과도한 의미부여임.
- 2012-07-08 <박근혜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는>
- 2012-07-08 <박근혜 캠프의 ‘정책’은 대선 공약의 산실>
- 2012-07-08 김두관 대선 출마 선언..野주자 경쟁 가열

- 2012-07-08 대권 잠룡 각축 본격화..박근혜와 누가 맞붙나
- 2012-07-07 <박근혜, 출마선언문 ‘슬로건’고심>
- 2012-07-06 <박근혜 캠프“영입 인사 비당원, 문제 안돼”>
- 2012-07-06 <박근혜 “출정식에 많은 분들 와 주셨으면”>(종합)
- 2012-07-06 김종인 “‘박근혜정책’ 타당성 검증 뒤 성안”
- 2012-07-06 <박근혜 출정식 키워드 ‘국민행복·열린소통’>
- 2012-07-06 <무상보육 대란..‘박근혜표 복지’에 영향 주나>
- 2012-07-06 <심재철 “경선, 김빠진 맥주처럼 될 가능성”>
- 2012-07-05 <박근혜, ‘자니운’ 영입해 동포 표심 공략>
- 2012-07-05 <박근혜가 100% 인선한 캠프 3대축 구성>(종합)
- 2012-07-05 <이상돈 “정수장학회 풀리는 노력 있는 듯”>(종합)
- 2012-07-05 <민주, 상임위 배정 완료..대여 공세 전열 정비>
- 2012-07-05 <박근혜 경선캠프 ‘국민행복캠프’ 인선 명단>
- 2012-07-05 <박근혜 타임스퀘어서 출마 선언..‘국민과 함께’>
- 2012-07-05 박근혜 10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서 대선 출마 선언(종합)
- 2012-07-05 <‘대선 올인’ 與 “무상보육 관철” 정부압박>-2
- 2012-07-05 <‘대선 올인’ 與 “무상보육 관철” 정부압박>-1
- 2012-07-05 박근혜 10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서 대선 출마 선언
- 2012-07-05 <박근혜 대선 공약 만들 캠프 정책 전문가 면면은>-2
- 2012-07-05 <박근혜 대선 공약 만들 캠프 정책 전문가 면면은>-1
- 2012-07-05 <이상돈 “박근혜, 박정희 시대 어두운 면 해소할 것”>
- 2012-07-05 <‘박근혜표 재벌 개혁안’ 입법화 스타트>
- 2012-07-05 <박근혜 캠프, ‘불통’ 이미지 확산 차단 부심>
- 2012-07-05 박근혜캠프 정책메시지본부장 ‘복지전문가’ 안종범
- 2012-07-05 <박근혜가 100% 인선한 캠프 3대축으로 구성>
- 2012-07-04 박근혜 캠프 홍보미디어본부장에 변추석
- 2012-07-04 <박근혜 경제민주화 의지 표명할까..청사진 주목>
- 2012-07-04 <박근혜캠프 3인방 상임위원장 포기..“대선 올인”>
- 2012-07-04 박근혜 10일 대선 출마 선언 할 듯..내일 장소 공개
- 2012-07-04 <與 대선공약단 첫 회의..‘경제민주화’가 핵심>
- 2012-07-04 <대선 5개월앞..박근혜 지지조직 勢 확장 대비>
- 2012-07-04 <박근혜 캠프 ‘현정부와 선긋기’ 본격화 할 듯>
- 2012-07-03 박근혜 캠프에 이상돈 전비대위원 합류
- 2012-07-03 <박근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 어떻게 되나>
- 2012-07-03 <박근혜 캠프서 ‘핵심브레인’ 유승민 빠진 이유는>
- 2012-07-02 <박근혜 경선 캠프 출범부터 ‘기싸움’>(종합2보)
- 2012-07-02 <박근혜 경선 캠프 출범부터 ‘기싸움’>(종합)
- 2012-07-02 이한구“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뭔지 모르겠다”
- 2012-07-02 <베일 벗은 박근혜캠프..2007 실무진 호흡>(종합)
- 2012-07-02 박근혜 “정보 협정 절차·과정 매우 유감”(종합)
- 2012-07-02 <박근혜 경선 캠프 출범부터 ‘기싸움’>
- 2012-07-02 <홍사덕 “박근혜 캠프, 덧셈·곱셈의 미학 실천”>
- 2012-07-02 박근혜 경선 캠프 공동대변인에 이상일·조윤선
- 2012-07-02 박근혜 “캠프 공식 출범 조만간 알릴 것”
- 2012-07-02 <베일 벗은 박근혜캠프..2007년 실무진과 ‘호흡’>
- 2012-07-02 <이상돈 “非차이 불통..0.1% 주자 경선 희화화”>

## ☞ 2면에 이어

2012-07-02 <김종인 “박근혜 경제 사회 치유 방향 충분히 인식”>  
 2012-07-01 <박근혜 대선 캠프 내일 문 열어..공보 강화>(종합)  
 2012-07-01 <박근혜 대선 캠프 내일 문 열어..공보팀 강화>  
 2012-07-01 <박근혜 출마 선언문? ‘스탠퍼드 연설문’ 보라>  
 2012-07-01 김문수 사실상 ‘경선 참여’ 입장 굳힌 듯  
 2012-07-01 박근혜 출마 선언 임박..대권 레이스 사실상 개막

## ▲총평

박근혜 후보의 대선 출정식(7월10일) 이전 열흘간 송고된 기사임.  
 박후보의 지지율이 높지만 일단 타후보에 비해 양이 과도한 것을 알 수 있음.  
 문재인(6월17일)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등 야권후보군의 경우 파업중임을 감안하더라도 박후보의 기사가 과도함.  
 출정식 전부터 각종 예고기사와 박스기사가 출고됨.  
 지지율이 높다고해서 과도한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그렇다면 적어도 야권의 대표주자와 양과 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 ◎ 박근혜2

2012-07-16 <문재인 “박근혜 상식적 역사 인식 가져라”>(종합)  
 2012-07-16 <YS “박근혜는 유신 2인자..역사 인식 결함”>  
 2012-07-16 <민주 대선주자, 박근혜 ‘5·16 평가’ 맹공>  
 2012-07-16 <박근혜 “내 이름 팔면 다 거짓말”..권력 비리 엄단>  
 2012-07-16 5·16,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종합3보)  
 2012-07-16 김두관 “박근혜와 나는 가장 대척점에 서 있다”  
 2012-07-16 <박근혜 5·16 평가 ‘구국혁명→최선의 선택’>  
 2012-07-16 민주 “박근혜 토론회, 절대군주 오만함 느껴져”  
 2012-07-16 <박근혜, 안철수·문재인에 ‘까칠한 평가’>  
 2012-07-16 <박근혜, 각종 의혹·비판에 적극 해명·반박>  
 2012-07-16 <박근혜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법인세 내려야”>  
 2012-07-16 <박근혜, ‘박정희시대’ “역사판단에 맡겨야”>-2  
 2012-07-16 5·16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종합2보)  
 2012-07-16 <박근혜, ‘박정희시대’ “역사판단에 맡겨야”>-1  
 2012-07-16 박근혜 “5·16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2012-07-16 <문재인-손학규, ‘친노필패론’ 강대강 대치>  
 2012-07-16 박근혜 “5·16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2012-07-16 박근혜 “민주, 재벌 해체 막 나가는 것 바람직 안해”  
 2012-07-16 박근혜 “박지만, 검찰서 오라는 것 전혀 없었다”  
 2012-07-16 박근혜 “사당화 아니다..문제 본질 비켜가는 것”  
 2012-07-16 박근혜 “체포동의안 통과되지 않을 것 상상 못해”

## ▲총평

박근혜 후보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 기사임.  
 5.16쿠데타에 대해 ‘아버지의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라는 요지의 언급이 나왔음.  
 연합뉴스는 이를 신속히 전하고 종합2보까지 내보냈지만 박 후보의 코멘트를 중심으로 박후보가 5.16에 대해 구국의 혁명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만 서술.  
 이 발언 자체의 시비와 논란, 향후 파장에 대한 엄격한 진단과 분석이 전무했음.  
 5.16이 쿠데타라는 역사적 정의가 내려진 상황에서 국가지도자가 유력한 후보의 역사관에 대한 논란과 의문제기는 언론의 기본책무임.

## ◎ 안철수

2012-07-19 <홍사덕 “책 한 권 달랑 들고..국민에게 무례”>(종합)  
 2012-07-19 <안철수, 책 출간 이어 ‘힐링캠프’ 출연>(종합)  
 2012-07-19 안철수, SBS ‘힐링캠프’ 출연  
 2012-07-19 <민주 주자들, ‘안철수 출마’ 기정사실화>(종합)  
 2012-07-19 <서점가 안철수 대담집 ‘돌풍’>(종합2보)  
 2012-07-19 <서점가 안철수 대담집 ‘돌풍’>(종합)  
 2012-07-19 <민주 대선주자들, ‘안철수 출마’ 기정사실화>  
 2012-07-19 <안철수, 이명박 정부 신랄하게 비판>  
 2012-07-19 <임태희 “안철수와 한 때 의기투합”>(종합)  
 2012-07-19 <안철수 등판 가시화..대선판도 요동칠까>

2012-07-19 <“안철수의 생각”사실상 집권 비전 담겨>-2(종합)  
 2012-07-19 안철수 대권 도전 시사 “도전 안 무서워”(종합2보)  
 2012-07-19 <안철수, 여야 정치권에 ‘쓴소리’>  
 2012-07-19 <홍사덕 “책 한 권 달랑 들고..국민에게 무례”>  
 2012-07-19 <안철수, 대권 도전에 한 발 더 다가서>(종합)  
 2012-07-19 박근혜 “맞벌이부부에 방과후 돌봄 서비스”(종합)  
 2012-07-19 <안철수 “총선서 野 패배후 대선출마 고민”>(종합)  
 2012-07-19 <인터뷰> 안철수 대담 제정임교수  
 2012-07-19 <“안철수의 생각” 사실상 집권 비전 담겨>-2  
 2012-07-19 <임태희 “안철수와 공정·정의로 한 때 의기투합”>  
 2012-07-19 김영환 “안철수 원장 모셔야 할 상황 임박”  
 2012-07-19 <안랩이 선정한 상반기 5대 보안 위협 요인은>  
 2012-07-19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양보 이후 고민 시작돼”>  
 2012-07-19 안철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종합)  
 2012-07-19 <안철수 신간 ‘기습’ 발간 배경은>  
 2012-07-19 <안철수, 대선출마 의사 내비쳐..행보 주목>  
 2012-07-19 <“안철수의 생각” 사실상 집권 비전 담겨>-1  
 2012-07-19 <안철수 저서로 본 국가운영 구상>  
 2012-07-19 안철수 “도전은 힘들 뿐 무서운 것 아니다”

## ▲총평

안철수교수가 책을 냈던 7월19일 기사목록.  
 박근혜후보에 대한 과도한 기사의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기사량이 많음.  
 책을 입수한 시각을 고려하더라도 중복된 기사가 다수 송고됨.  
 안교수가 유력 대권주자이긴 하나 박후보와 마찬가지로 필요이상의 기사량은 공정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 기타

2012-07-20 <박근혜-안철수 비전 유사점·차이점은>-1,2  
 ▲박과 안의 정책비교를 한 기사.  
 둘은 모두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한미 FTA 평가 제주 해군기지 등 현안에 대해 뚜렷히 대조되는 입장이라는 것이 주된 평가임.  
 그중 박 후보가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는 안 교수와 용어만 다를 뿐 상세 내용이 상이한데도 이를 유사한 점으로 들거나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는 등 인위적인 틀로 유사점을 서술함.  
 이는 안교수가 박후보의 차별성을 좁히거나 뭉뚱그림으로써 안교수의 지지층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12-07-17 <박근혜 DMZ 방문..北 군부 재편 속 ‘안보행보’>

▲박후보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는 예고기사임.  
 처음도 아니고 네번째 방문인데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했다고 판단됨.  
 군복을 입는 것을 비롯해 북한의 예기치 않았던 군부재편까지 끌어들이는 점은 필요 이상으로 보임  
 반면 야권주자들의 일정은 가십거리로 처리하거나 드라하게 송고.  
 야권주자라고 해서 우호적일 이유는 없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대권주자의 일정에 연함이 나서서 해석을 심하게 달 이유는 없을 것임.

2012-06-29 이 대통령 제2연평해전 10년만에 명예회복

▲제2연평해전 10주기를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여했다는 내용임.  
 그러나 이런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이전 정부의 스탠스를 폄하했음.  
 기사중 <심지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해전이 발발한 다음날 월드컵 결승전 관람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고려해야 할 부분임.  
 당시 김 전대통령의 월드컵 결승전 관람은 이미 예정됐던 정상외교 일정이었음.  
 제2연평해전 영결식도 중요했지만 이런 정상방문을 고려하지 않고 한가하게 축구경기나 봤다는 투의 기사는 사려깊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음.  
 제목에서도 ‘명예 회복’이라고 쓴 것은 이전 정부에서 훼손된 명예를 다시 찾았다는 의미인데 이 역시 이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려다보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임.

2012-08-13 “이대통령 독도 방문 지지율 84.7%”

▲특임장관실에서 이대통령의 독도방문 다음날 자체 조사한 결과를 다룸.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 외엔 신뢰수준, 오차범위, 설문항목 등 여론 조사의 기본이 되는 팩트를 누락해 여론몰이 성격이 있었음.



## 김승욱 “나는 기자다” 참글상 영예 파업 이후 의미있는 기사 발굴에 발품

제 188회 참글상의 영예는 사회부 김승욱 기자(30기)에게 돌아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는 28일 월례회의를 열어 김 기자가 취재, 보도한 <알비니즘 딛고 장애학생 가르치는 선생님> 등 기사 3건을 장려상 수상작으로 결정했다.

전체 공보위원 17명 중 9명이 수상 자격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 이어 상의 격을 정하는 참석 위원 5명이 전원 그 같이 판단했다.

위원들은 김 기자가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늘을 조

명하고 소외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하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점을 높이 샀다.

사건팀에서 뛰고 있는 김 기자는 파업 이후 ‘좋은 기사를 쓰는 개념기자가 돼야겠다’고 마음 먹고 남들이 가지 않는 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소재를 찾아냈다.

<몽골서 날아온 두살배기 툽가의 안구암 수술> <세계대회 참석 애타는 농아인 축구대표팀>(이상 7월분) <대림시장 ‘역사의 뒤안길로’..눈물의 송별회> <제2의 남현희 꿈꾸며’..칼끝에 희망 신다>(이상 8

월분)는 그런 노고의 산물이다.

김 기자는 “파업을 하면서 언론의 펜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다”면서 “업무에 복귀하면 열심히 취재해서 우리 사회의 아픈 사람들을 보듬고 사회 부조리를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참글상 심사는 지난 2/27~3/2 노조의 연가투쟁, 3/15~6/25 파업투쟁 기간을 제외하고 주로 7월에 출고된 기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30만원이 주어진다.

### 파업이 다시 일깨운 기자정신

- 사회부 김승욱 기자(30기)의 참글상 수상 소감



“엄마. 나 망했어.”

일부러 차분하게 얘기했는데도 어머니는 무슨 애 떨어졌느냐는 반응이었다.

“왜???”

“돈이 떨어졌어. 내일부터 진짜 굶게 생겼어.”

난 그만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을 숨 넘어가게 웃었다.

파업 석 달째. 통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설마 굶어 죽어야 하겠어’식의 진지한 생각을 하다보

면 이 상황이 어이없고 황당해 웃음이 나왔다.

욕 덜 먹는 게 목표가 될 정도로 의미 없는 회사원 생활을 하던 중 파업이 시작됐다. 일할 땐 미처 몰랐던 것들을 파업하면서 알게 됐다.

언론의 펜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다. ‘짜라시’로 치부하고 괘시했던 인터넷 매체 기사도 누군가에게 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주어진 환경이 인간을 얼마나 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만든 일도 있었다.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쩌다 사람이 저 지경이 됐을까’ 싶어 연민을 느꼈다.

사건 기사를 하며 만난 무수히 많은 피의자에게도 저마다 사정이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업무에 복귀하면 열심히 취재해서 우리 사회의 아픈 사람들을 보듬고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자고 마음 먹었다.

파업에 들어가기 전 몸으로 도와야 하는 집안일이 있었는데 업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죄송해 금전적으로 보태드렸었다. 어머니는 내 엄살(?)에 약간의 웃돈을 얹어 그 돈을 돌려줬다. 덕분에 한 끼도 굶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업무에 복귀한 첫 주. 기사거리를 찾아 경찰, 시민단체, 대학 마와리를 돌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다음 아고라’에 들어가봤다. 아고라에는 취약 계층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모금 운동을 하는 코너가 있었다.

여기에서 농아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사연을 접했다. 예산이 부족해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을 읽고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기사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농아인 대표팀은 예정대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터키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알비니즘 기사는 전화로 취재해 썼는데도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것 같다.

무더위와 관련한 아이템을 찾다가 파업 때 자전거로 4대강 국토 순례를 했던 게 생각났다. 당시 반팔·반바지를 입었는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6월이었는데도 화상을 입고 말았다.

어디선가 읽은 알비니즘이 떠올랐다. 알비노들은 일반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화상을 쉽게 입는다고 했다.

알비노를 섭외하기 위해 유명 피부과 몇 곳에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구동성으로 우리나라에 알비노는 매우 드물다며 큰 병원을 통해서나 가능할 거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홍보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피부과 교수를 소개받았지만 그 교수도 “병원에 오는 환자가 1년에 1~2명 될까 말까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질병관리본부, 한국희귀질환재단 등에도 문의했지만 답은 비슷했다.

포털에서 알비니즘과 관련된 용어를 이것저것 바꿔 넣어가며 검색해봤다. 그랬더니 “백색증(알비니즘의 우리말) 어린이를 만났다. 그 아이도 내 어린시절처럼 차별 받으며 서러워하고 있진 않을까”라는 내용의 글이 나왔다.

이 글을 쓴 분이 이동일(40)씨다.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전화 인터뷰가 성사됐다.

어느날 민주당을 출입할 때 알고 지내던 당직자에게 전화가 왔다. 현재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보좌관으로 있는 그는 “대림시장이 이번달 말에 폐업하는데, 우리 의원이 신경 써줘서 (폐업이) 한달 늦춰진 거다”라고 제보(?)를 했다.

전통시장이 폐업한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했다. 이 보좌관으로부터 대림시장 상인 연합회 회장 연락처를 받아 취재해보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밀려 44년 만에 문을 닫는 거라는 안타까운 사연이었다.

40년 넘게 동고동락한 상인들이 14일 저녁에 ‘쫄파티’를 한다는 정보를 얻고 현장을 취재했다.

내가 참글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배가 나한테 그랬다. “알고 보니 선배가 미담 전문 기자였군요!”

고마우면서도 민망했다. 미담에 꽃혀 있는 통신기자라.... 그리 떳떳하지 않은 자화상이다.

앞으로는 팩트에 충실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많이 쓰도록 노력하겠다. 100일 넘는 파업의 기억은 앞으로 기자 생활하면서도 절대 잊지 않겠다.